

220여개 철도건설 참여업체에 '총사업비 매뉴얼' 배포

- 총 47개 사업, 102조 6131억원 총사업비 효율적 관리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2012년 현재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사업 등 총 47개 사업 102조 6131억원의 총사업비를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관리 실무자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220여개 참여업체에 배포하였다.

공단은 지난 1994년 정부가 대규모 SOC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자체 총사업비관리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장 참여업체 실무자들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관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공단은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기준, 자료작성 요령, 단계별·항목별 작성내용과 함께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사례 등이 담긴 '총사업비관리 실무자 사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 및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가 방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실시설계VE로 343억원 절감

- 경제적 설계기준 적용, 시공방법 개선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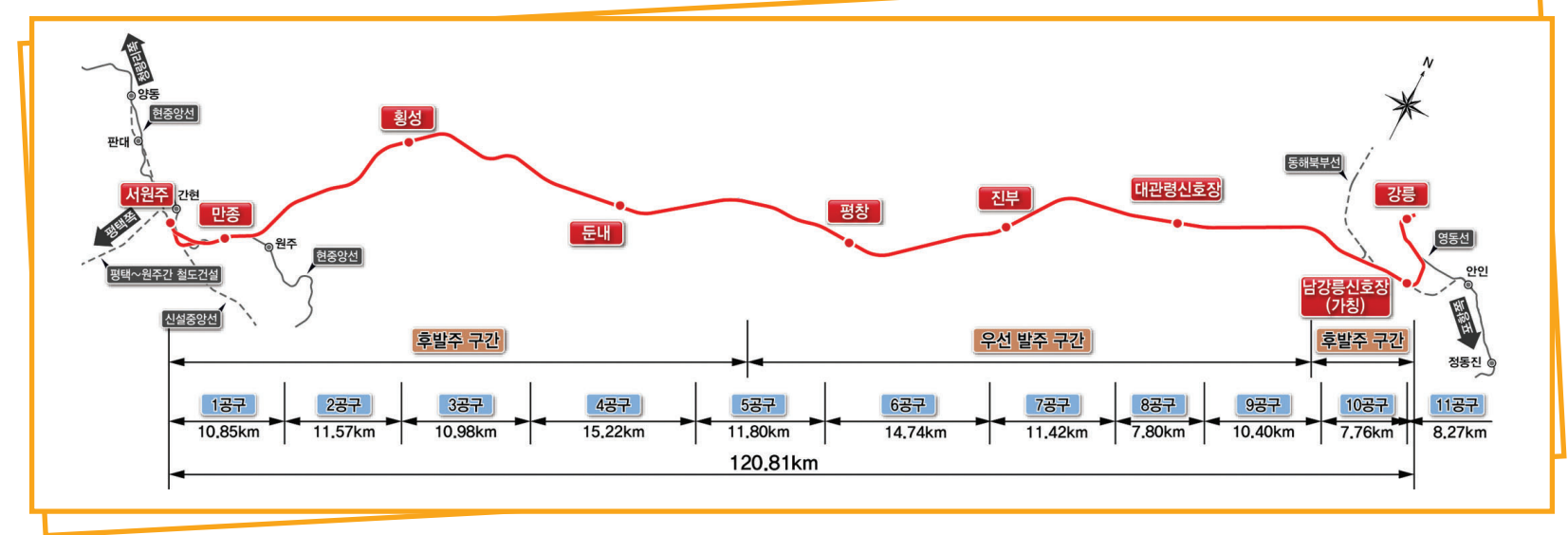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분야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 현장여건을 반영한 교각기초 단면최적화 등 46건을 개선하여 약 34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절감 내용은 ▲지질조건에 적합한 터널 굴착공법 적용으로 136억원 ▲교각기초 단면 축소와 파일본수 조정으로 42억원 ▲터널 시중점부 개착구간 방수공법을 시트공법에서 아스팔트공법으로 변경하여 22억원 ▲비탈면 안전성 재검토를 통한 보강공법(Soil nailing) 간격을 1.5m에서 1.8m로 조정하여 21억원 ▲교량유지관리 통로 확보를 위해 전 구간에 탈선방호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부분에만 시공토록 개선하여 18억원 ▲터널 라이닝을 이중구조해석 설계방범에서 지반라이닝 상호작용해석 방법으로 개선하여 17억원 ▲교량구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음벽 설치구간 조정으로 14억원 ▲비탈면 기준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구배 및 소단높이 조정으로 13억원 ▲교량기초 파일근입깊이를 15m에서 13m로 조정하여 6억원 절감 등이다.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구간에 설치될 철도구조물의 경제적 설계 및 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실시설계



건설본부 · 청년중역 태풍피해 농민 지원

- 태풍이 일찍 수확한 낙과 나주배 팔아주기 운동 전개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청년중역과 함동으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나주지역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태풍이 일찍 수확한' 낙과 나주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약 550상자(2.8ton)를 구매하였다.

이번 낙과 나주배 팔아주기 운동은 매일 운영되는 공단 청년중역 회의 결과에 따라 태풍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들에게 지금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낙과 농수산물 많이 소비해주는 것이라는 건의아래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낙과 나주배 팔아주기 운동에 전직원이 동참하게 됐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본부 조경완 기자)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 본격화

- 2018년 완공 목표 '청량리~경주 2시간 거리'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중앙선구간(청량리~경주) 중 복선전철화 미착공 구간인 도담~영천~신경주(173.6km) 복선전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하고 10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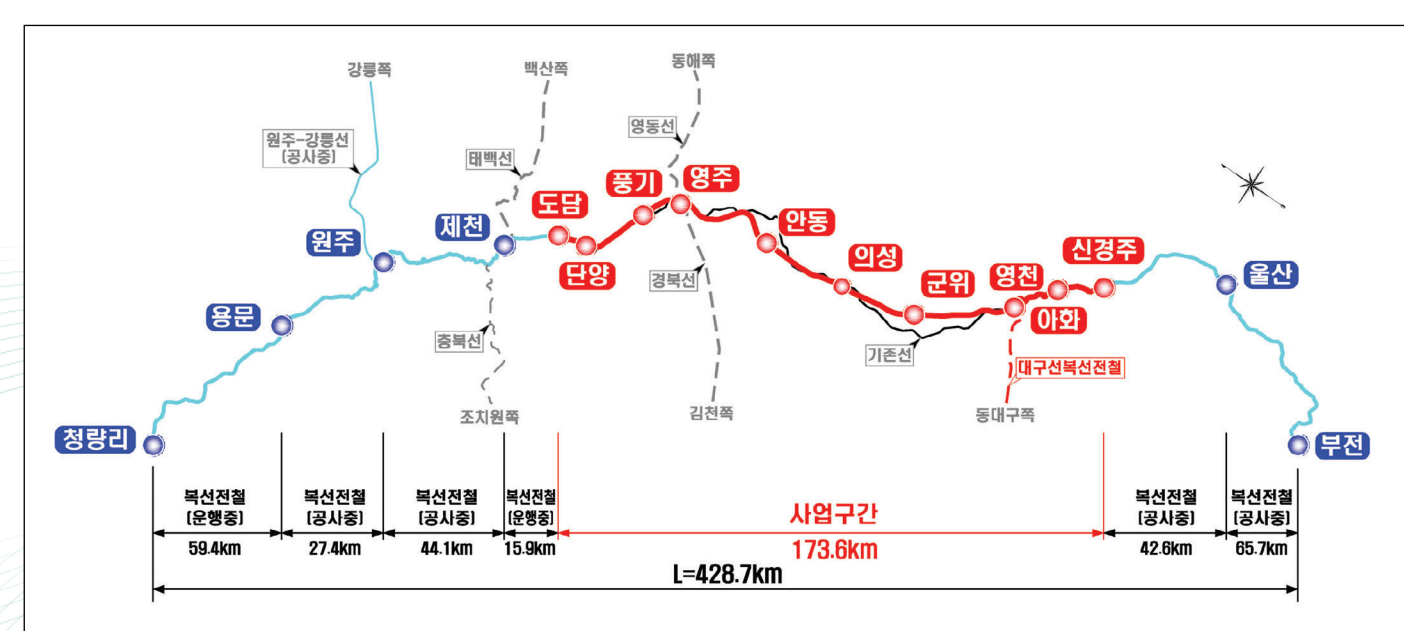
총 사업비 4조3282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예정인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최고시속 250km/h의 고속화전철이 운행되며 청량리~신경주간에 운행시간이 현행 5시간 59분에서 1시간 59분으로 무려 4시간 단축된다. 또 고속철도 신경주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져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 버스·승용차 (경부고속도로 경우) : 약 4시간 40분 소요(청량리~영천~신경주)

철도 : 청량리~영천(1시간 48분), 청량리~신경주(1시간 59분)

공단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은 최첨단 설계기법과 기술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도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역상전송설비 신설공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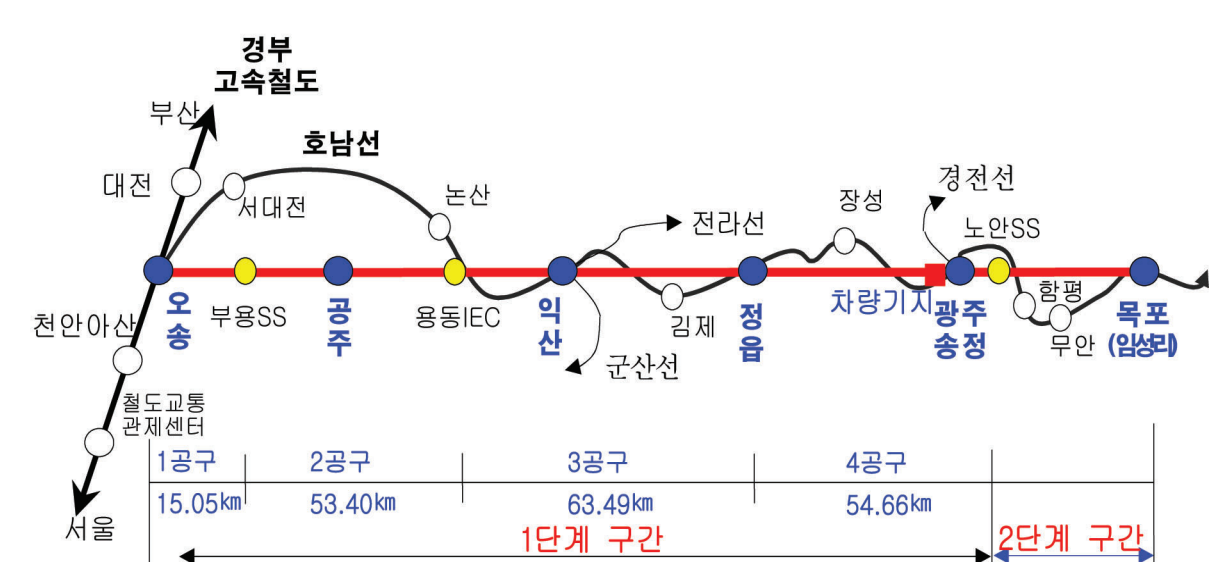
- 총 공사비 406억원 규모, 4개 공구 분리발주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간)의 선로변 광역상전송설비 신설공사를 지난 9월 20일 입찰공고를 하고 11월부터 본격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역상전송설비 신설공사는 터널, 교량, 선로전환기 등 보안취약개소를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원격감시하기 위한 총407억원 규모의 공사로 오송~부용SS, 부용SS~용동IEC, 용동IEC~정읍역, 정읍역~노안SS의 4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한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업체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및 '1社 1공구 낙찰제' 등을 적용하여 특정회사 편중 낙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역상전송설비 신설공사는 '14년도 말 호남고속철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차량 더 넓고 안락하게, 수송능력 향상

- 무릎 공간 5.7~7.5cm 늘리고 자리 수 늘려 승객 13% 더 태워 -

2015년부터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투입할 고속차량의 좌석이 현행 'KTX-산천' 보다 더 넓어지고 좌석수도 대폭 늘어난다.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그동안 공간협소로 이용객의 불만이 많았던 고속차량 좌석의 무릎공간을 약 5.7~7.5cm 넓히고(KTX대비 7.5cm, KTX-산천대비 5.7cm), 좌석수도 47석 증가한 410석(특실 33석, 일반실 377석)으로 개선하여 호남고속철 22편성(220량) 차량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속차량에 항공기 좌석 등반이 구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차량의 가죽실, 부속실 등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과 방수실, 승무원실 등의 기능이 중복된 공간을 찾아내 실내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호남고속차량은 객실 좌석의 인체공학설계, 모바일 기기용 좌석별 전원 콘센트, 고효율 LED 조명, 항공기 타입의 좌석 테이블 적용 등으로 'KTX-산천'에 비해 한층 더 안락할 뿐만 아니라, 좌석수 증가로 하루 102회 운행 시 4,794명의 수송능력이 추가로 확보돼 수송능력이 13% 향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차량의 좌석 공간이 넓어지고 안락해질 뿐만 아니라 좌석수도 늘어나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고속철도의 수송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구분 | KTX-산천 | 호남고속철도차량 |
|------------|--------------|--------------|
| 좌석수 / 무릎공간 | 363석 / 143mm | 410석 / 200mm |
| 공간비교 | | |

건설본부 대한설비건설협회 감사패 수여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한설비건설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설비건설협회 제47회 총회에서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설비건설업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그동안 건설본부에서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7, 9, 10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를 대기업과 같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로 지위를 높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중소·전문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분리발주제도를 운영하여 전기, 정보통신, 기계공사 등의 업종에 대하여 일반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는 등 'KR·협력사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건설본부 변태운 기자)

